

2년 연속 '빌보드상' 방탄소년단 세계를 홀리다

순례단 11인 송고한 여정 최초 공개



그들 방탄소년단(사진)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Billboard Music Awards·BBMA)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지난해에 이어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이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가 수상하기는 2013년 '강남스타일'로 '톱 스트리밍 송'의 비디오 부문상을 받은 싸이가 있으며 2년 연속 수상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올해도 이 부문에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셉 멘데스 등의 팝스타들을 제치고 수상해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줬다. 이 부문은 지난 3월 까지 1년간 빌보드 '소셜 50' 차트 랭킹과 주요 SNS에서의 팬 참여 지수 등의 실적과 14~20일 진행된 글로벌 팬투표를 합산해 수상자가 가려졌다.

엄정난 환호와 박수 속에 트로피를 받은 리더 RM은 "2년 연속이 중요한 상을 안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받게 돼 소शल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봤다. 몇몇 팬들이 우리의 음악이 삶을 바꿔줬다고 했는데, 소셜을 통해 옮겨지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을 가지는지 깨달았다. 아이(팬클럽명)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멤버 지민도 "여러분이 상을 받은 것"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한국어로 덧붙였다.

이들이 호명되자 히트곡 'DNA'가 흘러나왔으며, 한글로 '방탄'이란 써진 손팻말을 든 관객의 팬들이 포착되기

한국 가수 최초 연속 수상 기록

3집 컴백무대 시상식서 첫 공개

'톱 아티스트'상은 에드 시런

다"고 덧붙였다.

이날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엠넷을 통해 뮤지션 송상과 방송인 안현모, 대중음악평론가 강명석의 진행으로 생중계됐다.

최고의 영예인 '톱 아티스트'상은 에드 시런에게 돌아갔다. 시런은 '톱 핫 100 아티스트',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라디오 송즈 아티스트', '톱 라디오 송', '톱 남성 아티스트'까지 받아 6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아일랜드 투어 때문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그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감사를 전했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캔디드 라마는 '톱 스트리밍 송즈 아티스트', '톱 랩 아티스트', '톱 랩 남성 아티스트', '톱 빌보드 200 앨범', '톱 랩 앨범', '톱 스트리밍 송 오디오' 상을 받았으며, 브루노 마스는 '톱 R&B 아티스트', '톱 R&B 남성 아티스트', '톱 R&B 투어', '톱 R&B 앨범', '톱 R&B 송' 상을 받았다.

지난해 '데스파시토'(Despacito) 열풍을 일으킨 루이스 폰시는 '톱 핫 100 송', '톱 스트리밍 송 비디오', '톱 셀링 송', '톱 라틴 송'을 받아 4관왕에 올랐다.

본상에 해당하는 '빌보드 차트 어치브먼트 어워드'는 카밀라 카베요가, 신인상인 '톱 뉴 아티스트'상은 칼리드 가 받았다. 체인스모커스는 '톱 댄스/일렉트로닉 아티스트', '톱 댄스/일렉트로닉 앨범' 상을,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섬싱 저스트 라이크 디스'(Something just like this)로 '톱 댄스/일렉트로닉 송'상을 받아 3관왕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로드 다큐멘터리 '영혼의 순례길' 내일 개봉

'영혼의 순례길(사진)'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이 성지 라싸와 성산 카일라스 산을 찾아가는 1년간의 여정을 담은 로드 다큐멘터리다.

사는 마을에서 카일라스 산까지의 거리는 2500km. 그냥 걸어도 육체적 한계에 부딪힐 만한 길을 이들은 '삼보일배'를 한다.

이마 앞에서 손뼉을 한번 치고, 가슴 앞에서 또 한 번, 아랫배 앞에서 한번 손뼉을 친 뒤 미끄러지듯 도로 위에 오체투지(五體投地)한다.

아스팔트 도로 위를 미끄러지기 위해 이들은 손에 널빤지를 대고,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를 입고 삼보일배에 나선다.

널빤지가 도로 면과 마찰할 때 들리는 '스르륵'하는 소리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아스팔트 도로 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들은 눈 쌓인 도로 위나, 흙탕물이 흐르는 길 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던진다.

이들이 성지순례에 나선 이유는 제각각이다. 리더격인 니이마는 성지순례가 평생의 꿈이다. 그의 삼촌 양아버지 역시 죽기 전에 성지를 다녀오자 한다.

살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소백정과 출산을 앞둔 임신부, 집을 지으면서 인부 2명이 죽은 업을 풀고 싶다는 촌부까지 총 11명이 순례길에 오른다.

물론 이들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집을 실어나르던 트랙터가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여비가 떨어져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또 이들은 순례길의 시작과 끝에서 생과 사를 모두 경험하게 된다.

난관에 부딪히면 돌아가도 순례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차를 나누며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준다.

이들에게 순례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길'이기 때문이다.

2015년 작품으로 중국 다큐멘터리 영화 중 역대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개봉일은 24일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현수들(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국민의 일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리와 안아줘(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슈츠 1~8회 특별판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이리와 안아줘(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부처님오신날 UHD 특집 (원주, 돌아보다)(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4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0 MBC스포트 UEFA 챔피언스리그 (A팀 준결승 2차전)	00 뉴스브리핑
3	10 한국인의 밥상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4시 뉴스집중 40 2018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다불어민주당)	00 여유만만	40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바른미래당)	00 영재발굴단(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가정의 달 특선만화 코딩매를 네오봇마스터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경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현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송터	00 슈츠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남정음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북한문화유산 4부작	10 셉템피디 스페셜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아시아동물기행 5천년의 공존 인도네시아 물소)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문어냉채와 스위스식 감자전)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EBS 초대석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3:00 지식네일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30 너티너츠
08:45 띠띠뽀 뽀우	15:00 호기심 소녀 노트
09:00 뚝딱맨	15:15 파파리카
09:15 얼마 까투리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0:40 세계테마기행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그 섬에 가면 인도네시아 3부 그들이 사는 세상, 부키팅기>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말랄라 뽀우(재)
16:30 말랄라 뽀우(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1~2(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재)
17:30 두다다쿵	17:30 두다다쿵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재)	-화산섬의 비밀(재)
19:30 EBS 뉴스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9:50 아빠타	24:45 지식네일
	24:50 세계의 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3일(음 4월 9일 乙卯)

<p>子</p> <p>36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노파심은 거두어도 된다. 48년생 무리하지 않게 처리해야겠다. 60년생 빨리 모든 미련을 버려라. 72년생 외관은 보잘 것 없더라도 실속은 있느니라. 84년생 노력 못지 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라준다. 행운의 숫자 : 57, 00</p>	<p>午</p> <p>42년생 현저한 행운도 없지만 대고 얹어 무난하다. 54년생 현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66년생 굳이 생기기 싫도록 해야겠다. 78년생 발전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 90년생 아예 오후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9, 27</p>
<p>丑</p> <p>37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49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한다. 61년생 그대로 유지하자. 73년생 군사에 있어서는 간사한 꾀를 꺼리지 않는 법이다. 85년생 크게 상관될 바가 아니니 기존의 도량대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9, 71</p>	<p>未</p> <p>43년생 소강상태를 지나 활성화되리라. 55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자. 67년생 부단한 탐색과 준비가 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리라. 79년생 일관되게 행하라. 91년생 대응하는 강도에 따라 천차만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01</p>
<p>寅</p> <p>38년생 충분한 보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0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가 길할 것이다. 62년생 선제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74년생 참된 가치와 함께 하자. 86년생 말을 아끼지 않으면 지난날의 공로가 무너진다. 행운의 숫자 : 23, 55</p>	<p>申</p> <p>44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56년생 각각 각색이니 참으로 현란해졌다. 68년생 적재적소에 쓰여야 효과를 보는 법이다. 80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 순조롭기 그지없다. 92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자. 행운의 숫자 : 47, 99</p>
<p>卯</p> <p>39년생 사소한 것집에 정착하다보면 대국을 망친다. 51년생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63년생 주목 받게 된다. 75년생 순발력 있는 대처가 절실한 때이다. 87년생 순간적인 격정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4, 79</p>	<p>酉</p> <p>45년생 후유증도 따른다. 57년생 끝까지 경청해봐야 한다. 69년생 걸과 속이 꼭 찬 상태이니 서둘러 수확하는 것이 이익이니라. 81년생 정황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93년생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예상해 보는 것도 관찮다. 행운의 숫자 : 58, 53</p>
<p>辰</p> <p>40년생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52년생 즉시 조처하자. 64년생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76년생 자신을 상대에게 맞추는 편이 백 번 나은 것이다. 88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13, 22</p>	<p>戌</p> <p>34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이 보인다. 46년생 분수에 맞게 입해야만 복도 따르리라. 58년생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고 본래 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70년생 우회하여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82년생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5, 52</p>
<p>巳</p> <p>41년생 행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53년생 교제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 갈 수 있다. 65년생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되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77년생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89년생 한시를 봐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91, 19</p>	<p>亥</p> <p>35년생 바쁘게 쫓다녀야 할 일이 벌어지겠다. 47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59년생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71년생 근본적인 원인부터 쫓아라. 83년생 갇혀 있지 않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행운의 숫자 : 20, 6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